

20대 백수 11만명 폭증...정부 '청년 긴급일자리' 내놓나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은 노인과 달라 조심

청년인턴제 등 민간 유인책도 거론...“핵심은 경기 진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절벽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면서 정부가 신규 구직세대를 위해 긴급·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제때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알바나 계약직을 전전하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급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고용대책도 임시변통일 뿐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뒤에는 반드시 경기 진작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청년' 긴급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지난 21일 정부에 따르면 청년층에 대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고용안정 패키지가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 중인 데에는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20대 백수도 폭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인구가 지난달 41만2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9000명(35.8%) 급증한 것이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기존 고용유지·취약계층만 보호...코로나19 청년에 직격탄 날려

정부 대책이 기존 고용유지에 치중하고 각종 고용안정망까지 기존 취업계층 보호에 집중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고용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가능 하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고용행정 통계를 분석하면서 “신규채용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보 험자 상실과 고용보험 취득을 따져 봤을 때 취득이 더 많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신규 구 직계층인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재정지원일자리(공공일 자리) 사업을 청년층에 적용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처럼 단순 소득보 전이라는 목적만 달성해서는 대책 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

청년에게 제공되는 직무가 실무 파악, 직업훈련 등과 연계돼야 추 후 청년층의 고용시장 적응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노무에 대가를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공기관 채용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근본적으로는 하반기에 예정된 채용인원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해,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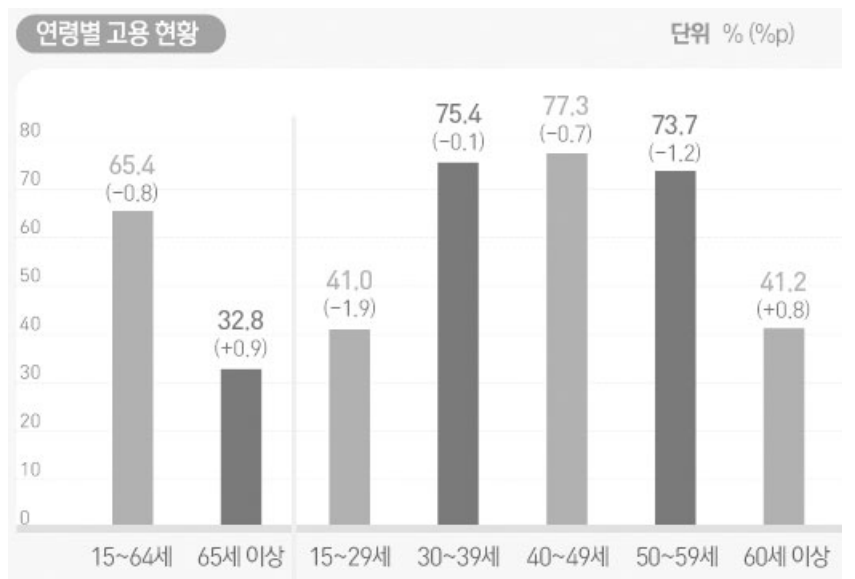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과거의 '청년인턴제도'를 본따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거론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 거나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 는데, 2016년부터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는 성격의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으로 변경돼 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 유인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청년 일자리 대책은 큰 줄 기만 확정된 채 대부분 내용은 조 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 재정 투입방안 등에 따라 지원 대 상이나 범위,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어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평 가했다.

◇청년 긴급일자리 임시변통...경제활성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해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보완하는 대책도 어디까지나 임시변통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경기 진작책 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체 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금의 충격을 견디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칫 이 부분에 정

책 역량을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력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며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혁신성장에 투자해,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돼 가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지금은 공공일자리로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돕는 실업대책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인호 기자

월급쟁이 3명 중 1명 월200만원도 못버는다...노무·서비스직 '박봉'

19년 하반기 고용조사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의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종과 단순노무직의 60~70%는 200만원 미만의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074만7000명 임금근로자 가운데 33.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10.1%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23.1%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1%포인트(p), 4.0%p 하락한 수치다.

반면 200만원 이상은 66.8%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했다. 200만~300만원 미만 31.9%, 300만~400만원 미만 17.0%, 400만원 이상 17.9%로 조사됐다.

산업이나 직업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과 저임금 직종의 빈부격차가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업, 숙박·음식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 박봉에 시달렸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에서 저임

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은 임금근로자의 67.5%가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숙박·음식점업도 64.5%가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였다. 반면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각각 39.6%, 37.4%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70.6%가 2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8%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42.6%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61.1%가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이

25.2%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35.9%였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는 2074만7000명이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76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443만4000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63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제조업이 393만9000명, 도소매업 230만7000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8만8000명 순으로 많았다.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42만1000명, 도소매업 132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신봉우 기자

LCC 위기, '5월 연휴'로 숨통 트일까

제주행 편도 티켓값 10만원 넘어...수익 기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저비용항공(LCC)들이 5월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노선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1만원도 채 안 되던 제주행 티켓값이 연휴를 앞두고 평년 수준으로 조정되면 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8만8000명 순으로 많았다.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42만1000명, 도소매업 132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서울에어, 부산에어 등 LCC들은 5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김포-제주 노선 티켓을 편도 기준 최저 8만7000원, 최대 10만6000원대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항공 운임 가격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추가된다.

제주항공은 주중 9900원, 주말 2만원대를 형성하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과 5월 1일 당일 항공권 가격이 각각 10만6500원으로 올랐다.

서울에어도 주중 9900원, 주말 1만9900원에서 오는 30일 9만2900원, 5월 1일엔 7만8900원으로 상승했다.

에어부산도 1~2만원대에 판매하던 실속항공권 가격을 30일엔 10% 할인율만 적용해 9만5400원에 판매 중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이번주 평일 6000원대에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 기 시작해 주말인 25일은 2만원, 오는 29일엔 6만6900원, 30일엔 10만6000원으로 뛰었다.

오는 30일 김포-제주 편도 티켓값은 진에어가 가장 저렴했다. 진에어는 30일 출발하는 티켓은 8만6900원으로 타사대비 2만원 정도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

이처럼 제주노선 가격이 일제히 오른 이유는 오는 30일부터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4월30일) 근로자의날(5월1일), 어린이날(5월5일) 등이 이어지며 5월4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6일간의 연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서울-제주 기준으로 성수기 운임이 최대 11만2700원까지”라며 “올해는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성수기로 분류가 됐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LCC들은 코로나19로 국지전 하늘길이 막히자 제주노선을 중심으로 증편과 신규취항을 경쟁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제주로 여행수요가 몰리며 탑승률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휴를 맞아 비행기 티켓값을 평년 수준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마감이 이어지고 있어 매출증대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른 출발 비행편부터 오후 6시 출발까지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다. 심지어 할인운임 티켓뿐 아니라 1심~2심인 비싼 일반운임 티켓도 차례대로 매진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LCC사들이 서울-제주 편도노선을 1만~2만원대에 운행하는 등 저실익이 먹기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어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번 5월 연휴를 계기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여행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워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기 운임은 수요에 따라 크게 변한다”며 “황금연휴 기간만큼은 국내 여행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요에 맞춰 공급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항공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4월 1~20일 수출

전년 비 26.9% ↓

4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1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의 본격적인 반영으로 분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은 217억 달러, 수입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6.9%(79억9000만 달러 ↓), 수입은 18.6%(57억5000만 달러 ↓) 줄었다.

연간누계로도 수출은 1.525억 달러, 수입 1.4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98억4000만 달러 ↓), 4.8%(74억7000만 달러 ↓)씩 감소했다.

1~20일 주요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반도체(-14.9%),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 부품(-49.8%)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7.0%), 미국(-17.5%), EU(-32.6%), 베트남(-39.5%), 일본(-20.0%), 홍콩(-27.0%), 중동(-10.3%)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현황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정보통신기기(6.5%), 승용차(15.8%) 등은 증가했다.



제철 암꽃게와 주꾸미로 든든한 저녁!

21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서해안 암꽃게와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가득한 주꾸미를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전 점 식품관에서 '계절과 식탁'이라는 테마 행사를 열고 암꽃게와 주꾸미를 판매한다.

“애플수박 맛 보세요” 함평군 5월 출하...웰빙 간편식 인기

함평군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플수박이 5월 초부터 본격 출하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재배를 통해 첫 출하했던 함평산 애플수박이 올해는 7농가 1.7

ha에서 일제히 수확작업에 들어간 다.

기존 수박의 4분의 1크기인 애플수박(900g~1.5kg)은 보통 시설 하우스 내에 터널처럼 땅굴을 뚫어 공중에 열매가 달리는 방식으

로 재배된다. 한 주당 3~4개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껍질이 얇고 높은 당도까지 자랑하면서 최근 웰빙 간편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